

광주시민, 종전선언 평가 긍정 66% 부정 5%

시민 1110명 평화·통일 인식조사 청소년은 긍정 59% 부정 7% 성인 65%·청소년 53% “통일 필요”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종전 선언에 대해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가 발표한 '평화·통일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성인 6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소년의 긍정 평가는 59.3%였다. 부정 평가는 성인 5.2%, 청소년 7.2%였다.

통일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 일부 인식 차이도 보였다. 통일에 대해 성인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31.2%),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26.0%)이라고 답했고, 청소년은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80.5%),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8%)이라고 응답했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인 65.2%, 청소년 53.1%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성인 9.6%, 청소년 16.2%였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성인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33.3%),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31.3%)를 꼽았고, 청소년은 '통일의 경제적 부담' (28.3%),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27.3%)를

들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성인은 '협력적 대상' (45.2%), '지원의 대상' (25.0%)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청소년은 '협력적 대상' (36.7%), '경제 대상' (31.8%)이라고 답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지방간 경제협력' (34.0%), '법·제도 마련' (21.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18.8%), '통일을 대비한 협력기금 마련' (14.0%), '국제스포츠 행사 공동 유치' (10.0%) 순이었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통일 체험공간 조성'이 각각 36.6%, '평화통일 관련 행사 개

최' 20.0%, '평화통일 단체 지원' 6.0%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시교육청·시 남북교류협의회의 회가 리서치 전문 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500명과 중·고등학생 6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정민 광주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조사 결과를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통일교육, 문화기반 조성사업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위한 플래마켓 열려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일 한 번씩 모여 품질 좋은 물품이나 음식들을 판매하는 플래마켓 '월장마켓'이 12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오픈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일을 맞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손수 만든 물건들을 둘러보며 구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회, 내년 예산 7조94억 의결

올보다 11.6% 증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년도 본예산 7조94억원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가 제출한 본예산 7조121억원보다 27억원이 줄었고, 올해 본예산 6조2831억원 대비 7263억원 (11.6%) 증가했다. 내년 설 명절 전후 광주 시민 1명(총 148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안 1338억원은 그대로 편성했다. 보육 관련 출생육아수당 458억원, 어린이집 보육 지원 19억원,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2억원, 아이돌봄지원 133억원 등을 의결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시설비 1억원,

5·18 역사외국 대응 지원비 3억3000만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2억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52억 6000만원, 평안형광도파로기반산업고도화지원사업 15억원 등을 책정했다. 우치공원 활성화 사업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만원, 주차장·유희시설 보수비 5억6000만원, 주차장 정비 2000만원, 도로 정비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자치구 도로 개설·정비비도 19억원을 증액해 104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참여예산 101억원(79건)은 절반가량을 삭감해 59억5000만원(49건)을 책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10억원) 삭감된 상무대로 광주 대표 상징물 조성비는 4억원을 편성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백신접종 부작용, 정부가 피해 구제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 적용 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1000건이 넘지만,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2건에 불과하다. 광주에서도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인과성 평가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전남도, 지원 확대

전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임신부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진료비 등 지원 규모를 60만원에서 100만원(다자녀 1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을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사용 범위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역인 보성, 장흥,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6개 군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해야 가능하며 읍면동사무소나 이용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우흥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이 임신·출산을 앞둔 도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지원에 누락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화력발전세율 100% 인상 법 개정안 통과

전남도가 주도해 타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노력이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11일 "지난 9일 '화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지역 화력발전소는 연간 7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4개소와 광양 2개소 등 화력발전소는 6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세 세율은 1kWh당 0.3원으로 원자력 발전세(1kWh당 1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지난해 5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또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및 지원 협조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